



정교회주보

제2403호

2023.01.15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이집트 동부 사막의 와디 아라바(Wadi Arabah) 오아시스 지대에 자리한 성 안토니오스 수도원 성당의 모습이다. 사막 바람으로 부연 모래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있다. 수도원은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가 말년을 보낸 동굴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성인의 제자들에 의해 361~363년경에 세워졌으며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의 하나이다. 성당에는 3개의 제단이 있는데 중앙은 성 안토니오스, 왼쪽은 성 마르코스, 오른쪽은 성 아타나시오스의 이름으로 봉헌되었다.



루가 제12주일

성 바울로 테베의 수도자
(제6조 • 조과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6조 부활 찬양송	82
수도자 찬양송	85
성당 찬양송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164
사도경 : 골로사이 3,4~11 ...	362
복음경 : 루가 17,12~19	13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결실을 얻는 기도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굳은 신뢰는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믿는 것에 토대를 둡니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인간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나 성인들의 생애에 나타난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 그 수많은 경험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가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전에 하느님께 구한 것은 모두 이미 얻었다고 온 마음을 다해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하느님은 아버지이시지,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성사도 바울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갈라디아 3,26)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우선 이것은, 모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아무도, 즉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이 없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잊혀지거나 소외되거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버지-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갇히거나 고독에 침잠하여,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쳐놓은 고립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세워놓은 고독의 벽을 부수십니다. 구약성서에서 보듯,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여호수아 1,5~6 참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인한 두 번째 영향은,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러하듯 단순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느님의 본질이 사랑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 1서 4,16)라고 요한 복음사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겁이나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그들에게 벌을 내릴 준비가 된 심판관으로 상상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쁘르피리오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희와 기쁨으로 인해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지옥을 손에 쥐신 채 우리를 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은 채, 헤아릴 수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를 받아 들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과 회개로 당신께 한 발짝 나아가면, 당신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기 위해 천 걸음을 내딛으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날마다 하느님을 더욱더 깊고 진실되게 사랑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하느님이 주시는 겸손

성 소프로니오스 (사하로프) 에섹스의 수도원 설립자(1896~1993)

여러 가지 종류의 겸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적이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꾸짖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은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여깁니다. 이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겸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해와 다른 인식,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성령에 의해 보게 될 때는 자신을 완전히 겸손한 상태로 낮추게 됩니다. 이는 정말이지 특

별한 겸손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묘사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성령에 의해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변모(변화) 될 것인데, 곧 부자는 자신의 부를 경멸하게 될 것이며, 학자는 자신의 학식을, 통치자는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낮추게 될 것이며, 깊고 심오한 평화와 사랑 속에서 살 것이고, 이 땅 위에는 무한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겸손과 힘

삐민 사부(340~450)는 난쟁이 요한(4세기) 사부에 대해 말하길, ‘그는 자신의 정념(精念, 파토스)이 사라져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난쟁이 요한 사부는 삐민 사부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적이 없이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그러자 삐민 사부가 말하였습니다. “가서 하느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대의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어, 그대가 늘상 겪었던 고통과 겸손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진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요한 사부는 하느님께 간청하였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자 그 영적 전쟁이 없어지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언들'에서 옮김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7일(화) 축일을 맞이하시는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월 17일(화)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
- * 1월 18일(수)
성 아타나시오스, 성 기릴로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 * 1월 21일(토)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도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설날 추도식 안내

다음 주일(22일)은 설날입니다. 성찬예배에 이어 추도식이 거행되오니 꼴리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성찬예배

요한 박인곤 신부의 40일 성찬예배 집전은 이번 주부터 울산 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례 바랍니다.

소식

■ 신자총회 개최 공고

오늘 성찬예배 후, 각 성당(전주 성당 제외)의 2023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 대교구 의회 개최 공고

1월 29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19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신자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안 결의와 발언권은 대교구 정관에 의거하여 의회 의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출국

지난 주일(8일) 저녁,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그리스로 출국했습니다. 일정은 국제 신학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서 총대주교와 한국 교회 현안 논의,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아테네 추모 행사 참석 등이며 1월 24일 귀국합니다.

■ 전주 성당 제단과 샹들리에 설치

지난 3일(화) 그리스에서 제작된 거룩한 제단과 샹들리에(뿔리엘레오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려운 설치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혀를 조심하십시오"

젊은 수도자가 시오이 원로 수도자에게 고백하였다.
 "스승님, 저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얻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을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혀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결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